DOCUMENTATION 9 SEPTEMBER 2010

KUNSTHALLE GWANGJU PRESS COVERAGE BEST OF

KUNSTHALLE
GWANGJU
아시아문화마루

GWANGJU CITY / DONG-GU
CENTRAL PLAZA IN FRONT OF OLD PROVINCIAL HALL
아시아문화전당광장 /(구)도청 앞
TEL: / FAX: +82-(0)62-236-0730 / -0735
MAIL@KUNSTHALLE-GWANGJU.COM / WWW.KUNSTHALLE-GWANGJU.COM

PRESS COVERAGE OVERVIEW 18 MAR – 6 SEP 2010

TOTAL	160
PRINT TOTAL	91
NEWSPAPER	85
MAGAZINE	6
ONLINE TOTAL	60
BROADCAST TOTAL	9
TV	5
RADIO	4

한겨레
1 SEP 2010

미리보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콘스트할레 광주' 어제 개관
실험적 공연·첨단작품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콘스트할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 광장에 문을 열었다. '콘스트할레 광주'는 연면적 1010㎡에 건축미니 박스 29개가 설치돼 있으며, 회의실 따라 소규모 도서실과 교육 공간, 멀티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중앙에는 영상과 무용, 소리, 첨단미디어가 합쳐된 공연이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건축에서부터 만든 실험적 문화공간인 '콘스트할레 광주'가 31일 본격 일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재개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2014년 준공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콘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이 공간은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아시아 문화마루'란 한글이름도 붙였다. 이 공간은 문화전당이 공식으로 준공될 때까지 4년 동안 운영되며 전시나 공연을 새로운 예술적 마을 예정이다.

이 공간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의 북동쪽에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3층 아치 성벽처럼 쌓아서 건축면적 320㎡(약 97평), 연면적 1019㎡(약 309평) 규모로 만들었다.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을 펼치고, 전시실과 공연장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3층 옥상은 광장 형태로 인근 문화전당의 공사 진척을 살필 수 있는 전망대로 꾸미고, 동부 안에 마련된 작은 도서실에선 세계 각국의 예술 도서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개관행사로는 스위스 아트그룹 에브이E-Toy의 그룹전시가 11월7일까지 열린다. 이무이는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디제이 퍼포먼스와 테이큐 파티 등을 펼치며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에브이는 스피로즘 공 16개를 연결해 디지털 정보를 나누고 인체의 동작에 반응하는 '터치타블 반'을 비롯해 '미션 이터너티' '이동이 브루드' 등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였다.

박광석 문화중심도시추진단 팀장은 "파격과 예술을 융합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안준철 기자 ckahn@hani.co.kr

서울신문
1 SEP 2010

컨테이너박스에 피어난 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미루-콘스트할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8개 컨테이너 29개로 구성된 '콘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에 연면적 1019㎡ 규모로 광장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광주 연합뉴스

PRESS COVERAGE 9 SEP 2010

광주매일
1 SEP 2010

실험적 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아시아문화마루〉

철제 컨테이너 29개로 구성…전시·교류의 장
스위스 그룹 이토이展, 사진작가 김중만 참여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 공개

철제 컨테이너 29개를 조립해 만든 '쿤스트할레 광주'(국문명 아시아문화마루). 겉에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컨테이너 더미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풍경들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처음 작품을 공개한다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의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설치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서 관객을 맞이했다.

한쪽에서는 작가와 방문객들이 바에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니 신기한 작품들과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난달 3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를 정식 개관했다.

독일의 문화그룹 '플래툰'이 만든 '쿤스트할레 광주'는 국제적 서브컬처와 시민이 만나는 문화교류 공간인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전당이 개관할 때까지 운영된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 휴관)

쿤스트할레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미디어가 서로 합성된 새로운 공연들이 열리고, 전시실과 뒷마당(아트야드)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 작가들의 매우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옥상은 긴 회랑처럼 연결돼 전당의 공사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며, 산책하듯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형 도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쿤스트할레 광주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문화전당의 생산 콘텐츠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추진단은 첨단기술,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세계에 유례없는 복합적인 개념이 담긴 문화전당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쿤스트할레 광주를 마련했다.

개관 기념전으로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 코퍼레이션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구체의 오브제 16개로 구성된 설치작 '타마타르',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토이 브루드', '미션 이터너티', '주주가치' 등이 소개된다.

백남준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작품 '타마타르'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중만씨는 "플래툰 측의 제의를 받아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진이 아닌 설치작품에 소리를 덧입히는 작업을 했다. 세상 곳곳의 소리를 담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재밌는 발상의 프로젝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쿤스트할레 광주의 공동 총감독인 톰 뷔셔만(Tom Buescheman n)과 크리스토프 프랭크(Christop h Frank)는 "15개월 전 쿤스트할레 서울을 지었는데, 벌써 또 광주에 쿤스트할레를 오픈하게 됐다"며 "광주가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느꼈다. 광주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는 광주는 가능성이 보이는 도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36-0730.

/정다운 기자 pwiss@kjdaily.com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기식 기자 p21@kjdaily.com

전남일보
1 SEP 20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배현태 기자 htae@jnilbo.com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화물 컨테이너 29개로 구성… 亞문화전당 미리 체험

광주도심에 국제적 문화교류 양식인 서브컬처(subculture·하위문화)를 만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31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문화전당이 개관할때까지 운영될 '쿤스트할레 광주'는 우선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의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공간부터 관람객들에게 쇼킹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기존의 건축개념을 떠나 재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았으며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성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매우 단순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또 컨테이너 박스의 희랑을 따라 소규모 도서실과 크육 공간, 편의시설 등도 마련됐다.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미디어가 서로 합성된 새로운 공연들이 개최되고, 전시실과 뒷마당(아트야드)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 작가들의 매우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옥상은 긴 회랑처럼 연결돼 전당의 공사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며, 산책하듯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형 도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쿤스트할레 광주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문화전당의 생산 콘텐츠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추진단은 첨단기술,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세계에 유례없는 복합적인 개념이 담긴 문화전당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쿤스트할레 광주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7시 쿤스트할레 광주에서는 'E-Toy' 그룹전시와 피포먼스, 바비큐 파티, DJ피포먼스 등의 개관 행사가 열렸다.

E-Toy 그룹은 1990년대 인터넷 문화 개척자로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룹이며 1996년 알스 일렉트로니카 골드 니카를 수상한 바 있다.

이기수 기자 kslee@jnilbo.com

PRESS COVERAGE 9 SEP 2010

무등일보
1 SEP 2010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어 E-T0y 그룹의 설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임정옥기자

중앙일보
1 SEP 2010

연예 | 민주광장에 신개념 전시공간 문 열어 [중앙일보]

기사 나도 한마디 (0)

광주 문화전당 미리 체험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 31일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31일 개관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의 내부 모습. [쿤스트할레 광주 제공]

쿤스트할레(Kunsthalle)는 전시 공간(Art Hall)을 뜻하는 독일어다. 우리말 이름으로 '아시아문화미루'인 쿤스트할레 광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올려 건축면적 520㎡(159평), 건축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하고, 문화적 활력을 일으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시민 참여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성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3층 외관을 장식하는 약외의 대형 영상 스크린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내부는 복합공연장과 영상예술을 감상하는 '미디어스크린 월'(media wall), 문화 도서실, 아트 라운지 등으로 꾸며진다.

쿤스트할레 광주의 개관 행사로 스위스 출신의 국제적 예술그룹 이토이의 작품전이 11월 7일까지 이어진다.

유지호 기자

연합뉴스
1 SEP 2010

) 형민우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
문을 열어 사진작가 김중만씨 등 작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9개로 구성된 `쿤스트할레 광주'는 연면적 1,019㎡에 520㎡ 규모
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이 공간에는 회랑을 따라 소규모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중앙에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
| 공연이 열리게 된다. <<지방기사 참고>> 2010.8.31

경향신문
2 SEP 2010

옛 전남도청 자리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 개관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가 지난 3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쿤스트할레'는 임시로 꾸며진 전시·공연장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물 컨테이너 29개를 이어 만든 이 공간에서는 영상·무용·소리·첨단미디어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고, 소규모 도서실·휴게실 등도 함께 들어섰다. 2014년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 기념으로 오는 11월7일까지 스위스 출신 예술가 그룹인 E Toy의 다채로운 인터넷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전시·공연이 마련됐다. 배명재 기자

PRESS COVERAGE 9 SEP 2010

무등일보
6 SEP 2010

광주, 월드뮤직 메카를 꿈꾸다 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결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콘텐츠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정체성 담아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부가가치 창출 기대

이병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할 것"

"광주 시민들의 내재된 '끼' 발전
페스티벌 내년 전역 국비로 추진
시 행정적 지원만~ 유료화 추진"

PRESS COVERAGE 9 SEP 2010

한국 정책방송
3 SEP 2010

PRESS COVERAGE 9 SEP 2010

NEWSIS
4 SEP 2010

유인촌 장관, 광주 문화관련 시설 찾아 바쁜 행보 펼쳐

NEWSIS 기사입력 2010-09-04 06:31

【광주=뉴시스】 지유석 기자 = 3일 오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개관한 '문스트할레 광주'를 찾아 관계자들과 공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문스트할레'란 현대예술을 아우르는 전시 공간(Art Hall)을 뜻하는 독일어로,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 설치되어 아시아 서브컬처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PRESS COVERAGE 9 SEP 2010

광주매일
31 AUG 2010

아시아문화미루 오늘 개관 광주비엔날레 등 현대미술 축제의 향연을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문화미루-콘스트할레 광주'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콘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의 컨테이너 박스 29개로 쌓아 만들어지며 마지 성복재원 특이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김혜리 기자 kkr@kdaily.com

PRESS COVERAGE 9 SEP 2010

THE KOREA TIMES (PRINT & ONLINE) 27 AUG 2010

Platoon's expansion: Kunsthalle Gwangju

광주매일
24 AUG 2010

쿤스트할레 광주, 드디어 문 연다

〈아시아문화마루〉

옛 도청 앞에 신축된 복합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아시아문화마루)'가 오는 31일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31일 쿤스트할레 광주를 공식 개관하며, 개관 행사로 11월 7일까지 스위스 아트 그룹인 이토이고퍼레이션(toy.CORPORATION)의 전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추진단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12일 5·18 3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의 꽃' 전시를 통해 프리오픈 했으나, 5월 19일 옛 도청 앞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그 일대가 폐쇄됐다.

프리오픈 당시 추진단은 "7월 말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공사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오는 31일 문을 열게 됐다.

31일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展 공식 개관전

지하도 붕괴·공사차질로 한달여 연기
시민들 문화교류·체험 공간으로 활용

현재 '쿤스트할레 광주'가 위치한 옛 도청 앞 분수대 인근 지역은 출입이 봉쇄돼 있다. 추진단을 도와 쿤스트할레 광주를 운영하는 클레멘스 관계자는 "개관에 맞춰 이 공간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개관전을 시작으로 쿤스트할레 광주는 작가와의 워크숍, 독립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전을 장식할 스위스 출신 국제적 예술그룹 '이토이'는 150만 명의 인터넷 검색 이용자를 (인터넷상에서) 납치한 프로젝트 '디지털 하이잭(digital hijack)' 과 eToy.com 의 문화배틀 등을 통해 1999년대 중반 유명세를 탔으며, 디지털계 아동으로서의 큰관을 이끌어낸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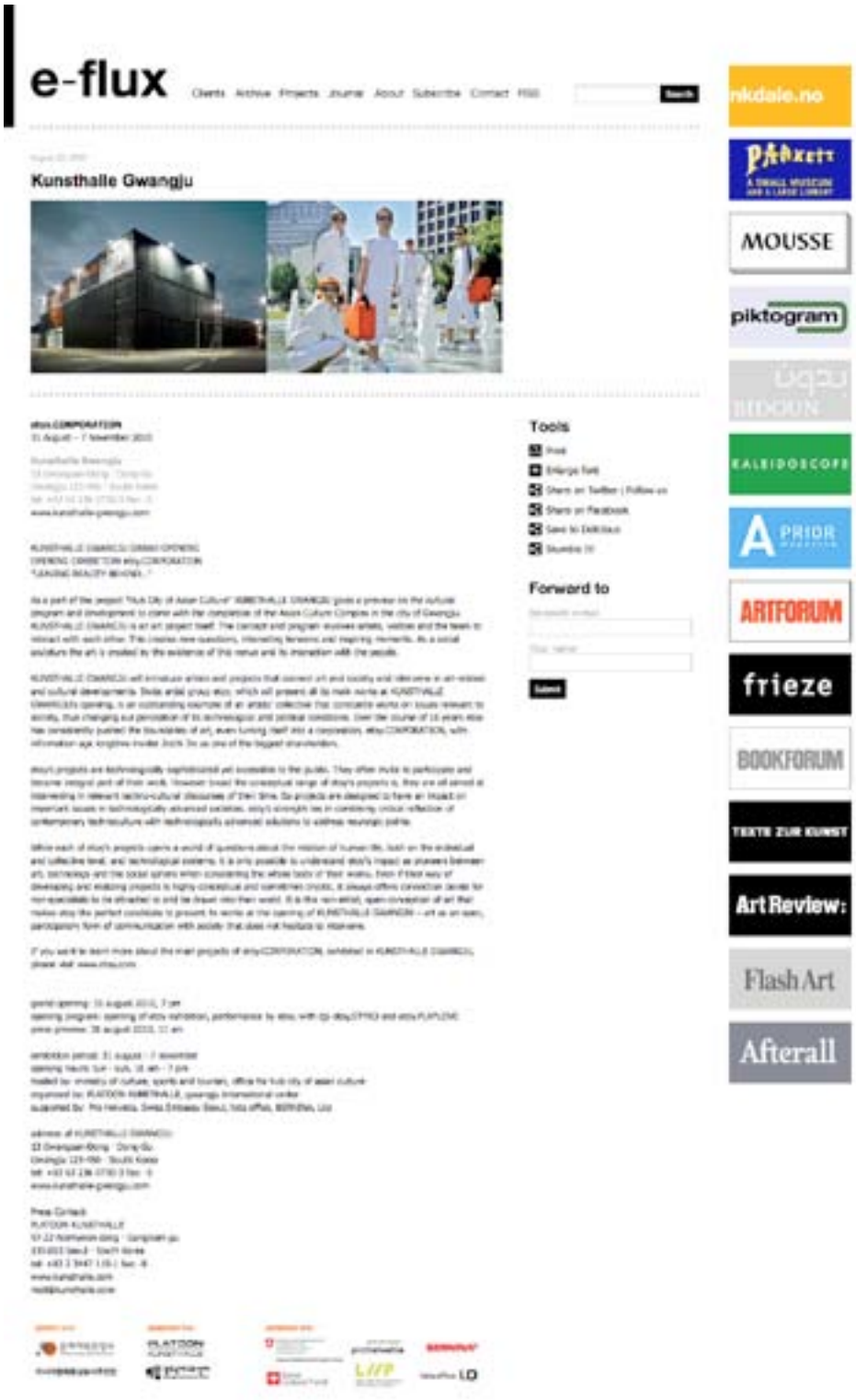
이토이는 작품에서 삶과 죽음, 돈과 계급, 자본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등에 관해 지능적이면서도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풀어낸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를 선보이는 이들은 행사 기간 동안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와 강연도 선보인다.

크리스토프 프랭크(41) 쿤스트할레 광주 감독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사람들 혹은 광주를 넘문하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는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쿤스트할레 광주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아시아문화마루'라는 국문 이름이 붙은 복합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0㎡(309평)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다. 재활용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즉이한 모양을 형상했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마루를 국제적인 '시브컬치가 교류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FLUX
22 AUG 2010



e-flux

Clients Archive Projects Journal About Subscribe Contact RSS

Search

Kunsthalle Gwangju

Tools

Print

Enlarge Text

Share on Twitter | Follow us

Share on Facebook

Save to Delicious

Stumble It!

Forward to

Submit

nkdale.no

Parkett

MOUSSE

piktogram

KALEIDOSCOPE

A PRIOR

ARTFORUM

frieze

BOOKFORUM

TEXTE ZUR KUNST

Art Review:

Flash Art

Afterall

한국경제
16 AUG 2010

[포토] 쿤스트할레 광주에 대해 설명하는 안톤숄츠, 크리스토프 프랭크

[이환희 기자]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 세계 월드뮤직의 축제가 될 '2010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국제적 뮤직 페스티벌 육성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총 21개국 42개팀의 세계 최정상급 해외, 국내 뮤지션이 대거 참여하여 보사노바, 플라멩코, 살사 등의 월드뮤직을 대중들이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음악축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병훈 추진단장, 인재진 감독과 아티스트 나윤선, 허윤정, 김동원, 쿤스트할레 광주를 준비한 크리스토프 프랭크와 안톤 숄츠가 참석했다.

PRESS COVERAGE 9 SEP 2010

조선일보

11 MAY 2010

사회 ▾ [호남] 신개념 예술공간 '군스트할레광주' 개관

기사 100자평 (3)

12일 프레오픈 기념전시 "아시아문화경당 첫제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문화도시추진단 단장 이병훈)이 국립아시아문화경당 안 민주광장에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군스트할레광주(아시아문화대주)'를 설치, 12일 프레오픈 행사를 연다.

문화도시추진단과 5·18 제30주년기념협사위원회가 공동으로 5·18 제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프레오픈 행사는 국제현대미술제 '오월의 꽃', 전시는 군스트할레광주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 이 건물도를 업체 전대미나 박스 29개를 쌓아 만든 신개념 문화예술공간"군스트할레광주"가 12일 프레오픈 행사와 함께 '오월의 꽃'으로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사진은 군스트할레광주 업무디그래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공

문화도시추진단이 지난 해 12월부터 공비한 '군스트할레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경당을 마리 체험하도록 하고, 문화적 활력을 일으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시민 참여의 폭도을 넓기를 만들기 위해 만든 공간.

수출을 건대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올린 건축면적 520㎡(157평)에 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었다.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관람을 중심으로 마치 설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제우 단순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진다.

여러 개의 다양한 내부공간으로 나뉘어 완결되는 군스트할레광주는 무선 3층 외관을 장식하는 복잡의 대형 영상스크린으로 시선을 끈다. 내부는 '최대 복합공연장'과 영상예술 감상을 위한 '디지에스크린 월 (media wall), 이외공연장인 '복성 아트이트', 문화 관련 서적과 잡지를 볼 수 있는 '아트 라이브러리', 시민과 관광객이 만나고 소통하는 '아트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군스트할레광주는 5월 행사기간 내내 다디어 영상 설치 등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한 뒤, 전태건에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기간을 거쳐 7월 30~3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군스트할레광주에서는 이후 한 달 동안 외국의 계관기념 행사들이 이어진다.

군스트할레광주의 우리말 명칭은 '아시아문화미루'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 공모에 응한 422개 작품 가운데 5개의 우수작을 선발, 최종 선정됐다. 새 이름은 '아시아 문화 고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모이는 장소, 그유되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문화도시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아시아플로이루'와 '군스트할레광주' 중 2개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충돌이 많은 컨테이너공간은 실험적이고 무연한 건축의 상징으로 기존 고정된 미술관이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소개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를 무대로 인디적인 아트를 발굴하 선보이는 창기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S COVERAGE 9 SEP 2010
전남일보
13 MAY 2010

29개 컨테이너 박스에 핀 오월 정신

쿤스트 할레 오픈…톰 뷔세만 디렉터 "광주문화인과 소통"

톰 뷔세만 씨.

29개의 컨테이너 박스에 오월 정신이 활짝 피어났다.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이었던 구 도청 앞에 들어선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문화공간인 '쿤스트 할레 광주'(아시아문화마루)가 12일 드디어 공개됐다.

정문에 들어서자 다양한 설치품들이 컨테이너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공식 오픈일은 7월 말이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는 '오월의 꽃' 전시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수출용 컨테이너의 재질인 금속이 주는 투박함이 광주의 그것과 닮은 듯했다.

5·18 당시 주 무대였던 구 도청 앞 광장과 이를 진압했던 군부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한 권승찬 씨의 디지털 프린트 작 'That Place'와 서민의 삶 같은 비닐포대를 싸집은 김주연 씨의 '티셔츠' 등 컨테이너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은 2010년 5월을 30년 전으로 재생시키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톰 뷔세만(45) 쿤스트할레 디렉터는 "80년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의 도청 앞에 쿤스트 할레가 세워져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소통하면서 광주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옛 도청 앞에 29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문화공간인 '쿤스트 할레 광주'(아시아문화마루)가 12일 오픈했다.

15번 정도 광주를 방문한 그는 이어 "1968년 독일도 광주처럼 정치·사회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따라서 광주가 전근하게 다가오고 사회 변화 에너지와 저항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를린과 서울에 이어 광주에 문을 연 쿤스트 할레는 서브 컬쳐 문화공간이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앞으로 광주지역의 비주류 문화를 담아내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퍼레이팅 매니저 등 8명 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톰 뷔세만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내 예술가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광주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톰 뷔세만과 공동 디렉터인 크리스토호프 프랭크는 이달 말 광주를 방문한다.

조사라 기자 sra0@jnilbo.com

PRESS COVERAGE 9 SEP 2010

광주일보
29 APR 2010

"아하~ 컨테이너 박스가 예술공간이었네"

시민 눈길 붙잡는 옛 도청 앞 '쿤스트할레 광주'

"어, 저 검은 컨테이너 박스들은 뭐지?"

최근 옛 전남도청일대에 등장한 검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두 달간부터 검은색 바탕위에 영문으로 '쿤스트할레 광주'라고 쓰여진 컨테이너들이 하나둘씩 쌓여나더니 현재 19여 개가 자리를 잡았다.

'쿤스트할레'(Kunsthalle)는 독일어로 예술, 미술(art)을 뜻하는 Kunst와 홀·강당(hall)을 뜻하는 Halle의 합성어로, 까지에 구애 받지 않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쿤스트할레 서울'의 전경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 새로운 문화 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가 첫 선을 보였다. 이곳은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김진수기자 jsaw@kwangju.co.kr

독특한 모양의 전시·공연장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추진단은 컨테이너 박스 내부를 공연장과 전시장, 세계 각국의 아트관련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아트 라이브러리 등으로 꾸며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명소로 가진다는 계획이다.

광기욱으로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지역의 문화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2014년까지 29개 박스 들어서 내달 12일 '오월의 꽃'으로 첫선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는 오는 2014년까지 이 일대에 연면적 1천39㎡, 건축면적 52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9개가 들어서게 된다.

우선 추진단은 오는 5월 광주비엔날레개관과 함께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오월의 꽃'(3월 12일~4월13일)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광주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모든 공사는 오는 4월말 마무리되지만 '오월의 꽃' 전시에 맞춰 프레오픈 할 예정이다.

쿤스트할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이미지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컨테이너는 어떤 건축물보다 이동이 자유롭고 기변적일 뿐 아니라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쿤스트할레는 '플래툰'이란 독일회사에서 기획 및 모양을 대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4월에 비엔날레에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두 번째 플래툰 쿤스트할레를 지었다.

'쿤스트할레 서울'은 톡톡 튀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갤러리, 젊은 작가들을 위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갖추고, 주말 밤에는 흥겹고 화려한 라운지 겸 클럽으로 변신해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았다. 건물이 이렇다며 제22회 한국 건축가 협회상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플래툰'이 직접 설계·시공을 해 광주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쿤스트할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서브컬쳐'(주변 계층의 하위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끽하면서 쉴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혁기자 leah@kwangju.co.kr